

1930년대 후반의 古下 宋鎮禹.

古下宋鎮禹

建準 협력제의 거부…「人共타도」에 앞장
美軍政과 제휴…민주정부 수립준비 노력

총독부 치안권 거절... 臨政奉戴추진



田 沼 重 信 侯 爵 的 英 美 經 典 讀 本 發 行 記
1999 年 12 月 25 日 田 沼 重 信 侯 爵 的 英 美 經 典 讀 本 發 行 記
田 沼 重 信 侯 爵 的 英 美 經 典 讀 本 發 行 記
田 沼 重 信 侯 爵 的 英 美 經 典 讀 本 發 行 記

所 寄

- △1890년 5월 8일(음력) 전남 담양군 고지면 손곡리 출생
- △1915년 日 明治4 법학부졸업, 중앙학교 학감
- △1918년 중앙학교 10대 교장
- △1919년 3·1 운동의 준비과정에 참여, 3·1 운동직후 피검되어 7개월동안 옥살이
- △1921년 동아일보 3대 사장
- △1925년 동아일보 주필,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 기독교청년대회에 참석해 李承晚 徐載弼과 만남
- △1926년 3·1 운동 7주기를 맞아 소련의 국제 농민회본부가 보내온 전보메시지를 동아일보에 게재해 6개월 옥살이
- △1927년 동아일보 6대 사장
- △1945년 8월 총독부의 치안권이양 교섭을 거절
- △1945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환영회 조직, 국민대회준비회 조직, 한국민주당 수석총무
- △1945년 10월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조직에 참여, 李承晚을 적극 도움
- △1945년 11월 임정 간부들의 귀국을 환영, 한국지사후원회를 조직
- △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 복간과 더불어 사장 취임
- △1945년 12월 30일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암살 당함

[illegible]

한민당 수석총무

[illegible]

1945년 12월 30일
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조
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조
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조



이름

선 사람에게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 것이다.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 된다.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다. 망해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. 결국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민족 반역자의 이름을 듣게 된다.

△「정권은 국내에 있던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해방되어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이 옳다.

1945년 8월 17일 동지들에게 밝힌 시극관
△『신탁통치에 최후까지 투쟁하자』
1945년 12월 29일 당회

계속하여...

[illegible]

「反共李承晩 시지」

[illegible][illegible]

“신탁 신중대처” 주장이 贊助으로 알려져 암살... 정치테러 첫 희생자

「해방공간의 주연」 7면에서 계속

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45년10월24일에 발족했을 때 사람들은 그 기구 아래, 특히 위원장인 李承晩의 카리스마 아래 좌우통합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. 그러나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 때 이미 날카롭게 대립했던 좌우투쟁이 그렇게 쉽게 완화될 수는 없었다. 더구나 李承晩은 이미 이때부터 반공노선을 분명히 했다. 그래서 좌우통합은 실현되지 못했다. 그러나 李承晩과 한민당

의 제휴는 확고해졌다. 李承晩은 한민당의 반공주의 노선을 믿음직하게 여겼으며 특히 『좌우합작을 시도하는 하되 성공하리라고 낙관은 하지 말라』던 古下의 예측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이다. 古下는 古下대로 현재의 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李承晩이 최선이라는 평소의 믿음을 더욱 굳혔다.

45년11월23일에 임정의 주석 金九와 부주석 金奎植 등이 귀국하면서 임정

을 중심으로 좌우통합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다시 살아났다. 그만큼 임정과 金九의 신망은 높았다. 古下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. 그러나 좌우익 사이의 골은 여전히 깊었다.

金九를 중심으로 한 임정 요인들은 곧 국내의 각 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해 특별정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. 이 기구는 같은 우익 안에서 李承晩의 세력 기반이 된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이연중에 맞서게 됐고, 그리하여 자연히 金九세력과 한민당 사이에

도툼이 더욱 벌어지게 됐다. 한편 좌익은 좌익대로 朴憲永의 조선공산당과 呂運亨의 조선인민당으로 양분된 채 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.

남한의 해방정국이 계속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며 더욱 혼미해지던 시점에서 또 하나의 폭발적인 일이 벌어졌다. 45년12월28일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美英蘇3국 외무장관의 「코리

아에 관한 의정서」였다. 이 의정서는 「조선인의 임시정부」를 세우되 「5년이

내의 신탁통치」아래 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.

한데 좌익은 「신탁통치 조항이 못마땅해도 임시정부부터 세우자」는 입장을 취했고 우익은 「도대체 신탁통치가 무슨 말이나」고 반

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좌우의 투쟁이 더욱 격화되게 됐다.

古下는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했다.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린 연합

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의사의 표명을 신중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. 이것이

찬탁으로 잘못 알려져 45년12월30일 새벽 28세의 韓賢宇에게 암살되고 말았다. 향년 만 55세였다.